

광주은행 'KJB 금융박물관' 내일 개관

창립 44주년 기념...유물·사진 1만여점 전시

광주·전남의 금융 역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KJB 금융박물관'이 오는 20일 광주은행 창립 44주년 기념식에 맞춰 개관한다.

'KJB금융박물관'은 광주은행 본점 2층에 면적 519㎡(156평) 규모로 들어서 1만여 점의 유물과 사진들을 전시·보관 하는 등 지역 금융의 다양한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다.

이번 'KJB금융박물관' 건립은 광주은행의 과거를 보존하고 지역 금융의 역사와 세계 화폐의 역사를 담아내 지역민의 문화, 경제적 육구충족을 위해 이뤄졌다.

또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 지역 꿈나무들의 올바른 경제관념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 초입에는 역사존, 홍보존, 화폐존 등의 전시실이 마련됐으며 박물관 한쪽에는 수장고를 설치해 지역 금융의 역사 자료를 전시 보존한다. 또한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 학습실, 금융교육실이

마련 돼 체험학습이 가능한 금융교육 공간으로 활용된다.

'역사존'은 전통의 물물교환 수단부터 백제의 화폐 거꾸집, 상경통보, 조선시대 어음, 아름다운 돈 '별전' 등 전통시대의 금융문화를 엿볼 수 있다. 또한 근대의 통장과 은행 전표, 수표발행기 등 현재까지의 금융 발전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홍보존' 중앙에는 광주은행의 1960~70년대 총장로 시대, 1980년대 금남로 시대, 1997년 이후 현재의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건물을 각각 시대별로 재현한 모형이 전시됐다.

'화폐존'은 우리나라의 화폐를 고대부터 현재까지 시대순으로, 세계의 화폐는 세계 대륙별로 전시했고 위조지폐를 직접 감별하는 체험코너도 준비됐다.

가장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금융 체험실'은 홍보와 함께 특별한 부자되기'를 주제로 흥부네 도량형 등 이야기가 있는 놀이 중심의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금융교육실'은 어린이와 청소년



KJB금융박물관 '홍보존' 중앙에 설치된 광주은행 현재의 대인동 본점 건물 모형. 홍보존에는 1960년대~70년대, 80년대, 97년 이후의 광주은행 본점 건물들이 각각 시대별로 재현 모형으로 마련돼 있다.

의 올바른 경제관념 정립을 위한 다양한 금융교육 장소로 연중 상시 운영된다.

광주은행은 이번 'KJB금융박물관' 건립에 맞춰 직원과 지역민이 보낸 소중한 유물들을 250여 페이지에 담아 '새로운 맥박이 뛰다-

KJB 금융박물관'이라는 제목으로 박물관 도록을 펴냈다.

한편 KJB금융박물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관하며 관람료는 무료다. 토·일요일은 휴관.

김준원 KJB금융박물관 설립 사

무국장(사회공헌본부 본부장)은 "KJB금융박물관은 지역 금융의 역사를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친근감 있게 구성했다"며 "광주·전남 지역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좋은 역사 문화 공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OB 골든라거' 판매 3억병 돌파

오비맥주(대표 장연수)는 16일 'OB 골든라거'가 출시 590일(지난해 3월 24일 출시)만에 3억병 판매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출시 200일만인 지난해 10월22일에 1억병이 팔렸고, 그로부터 222일만에 1억병, 168일만에 다시 1억병을 넘어서 판매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OB 골든라거'는 오비맥주가 80년 대한민국 맥주 역사의 자부심과 장인정신으로 빚어낸 프리미엄 맥주로 4년여 시간동안 11명의 베테랑 브루마스터가 '골든테이스트'라 불리는 최고의 맛을 찾아연구를 거듭해 태어났다.

특히 고품격 원재료와 신공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OB 골든라거'는 독일의 홉 가운데서 최고급으로 꼽히는 아로마 홉을 사용했으며 국내

유일의 타워 몰팅(Tower malting) 공법을 이용해 만든 골든몰트(황금맥아)를 독일 최고급 홉과 황금비율로 배합해 깊이와 품격이 다른 풍부함을 선사한다.

한편 'OB 골든라거'는 지난 7월 한국표준협회 주관하는 2012 프리미엄 브랜드 우수 프리미엄 맥주 부문에서 1위에 선정, 최고 품질을 인정받았다.

송현석 마케팅담당 상무는 "골든라거가 최근 나온 주류 신제품 가운데 가장 성장속도가 빠른 편"이라며 "앞으로 프리미엄 맥주 시장에서 견고한 입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삼성전자, 3분기 세계 TV시장 석권

삼성전자가 3분기 전세계 63개국 TV시장을 석권했다.

18일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 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세계 평판TV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25.2%로 27분기 연속 1위를 지켰다.

삼성전자는 세계 평판 TV 시장이 올해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

내는 데도 올해 1~3분기 누적 점유율이 26.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7년 연속 세계 TV 시장 1위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적으로도 북미·유럽 등 선진시장에서도 LCD·LED·PDP·3D 등 전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44년만에 복수체제 광주시 제1금고 光銀 유력

주중 선정... 제2금고 농협·국민은행 경합

광주시가 빠르면 오는 22일 시 복수금고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제1금고는 이번이 없는 한 지역은행인 광주은행이 맡을 것으로 예상되며 제2금고를 놓고 농협과 국민은행간 치열한 경합이 전망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재정분리를 통한 자금관리의 안전·효율성과 금융서비스의 향상 등을 이유로 복수금고 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22~23일 일반·특별회계를 관리할 2개의 금융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시 복수금고에는 광주은행, 농협, 국민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의원 2명,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각 1명, 공무원 4명 등 총 10명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만간 시 금고 2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지역 금융계 등에서는 제1금고의

경우 지난 40년간 시 금고를 맡아온 광주은행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이번 복수금고 선정에는 농협과 국민은행 중 누가 제2금고를 맡게 되느냐가 관심사다.

일단 출중한 지역 금융망 등을 감안하면 농협이 다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광주는 금융망이 열악한 산간오지와 섬 등이 많은 전남과는 달리 도시지역이라는 점에서 국민은행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2금고는 자금규모면에서 제1금고에 비해 미미하지만, 향후 제1금고 선정에 선정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OCR(광학식문자판독) 고지서가 수반되는 13개 특별회계를 맡게 되며 시 전체 예산(2012년 기준) 3조 5629억원 중 3조 4776억원을 맡게 된다. 각종 기금

과 OCR 고지서가 필요없는 수질개선, 영산강살리기, 장기 미집행, 기반시설 등 4개 특별회계를 각각 맡게 되는 제2금고는 나머지 853억원을 맡게 된다. 차기 시 금고 약정기간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4년이다. 광주시의 이자수익은 2010년 89억 700만원(일반회계 32억 2500만원, 특별회계 등 56억 8200만원), 2011년 115억 4100만원(일반회계 53억 5200만원, 특별회계 등 61억 8900만원)이다.

한편 광주시 남구의 금고를 관리할 금융기관으로 광주은행이 최종 선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금고를 맡게됐다.

남구는 "금고 입찰에 참여한 광주은행과 농협을 놓고 지난 16일 오후 남구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광주은행을 구금고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스카이패스 회원들에 포르쉐 시승 기회

대한항공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하얏트리젠시인 천에서 독일 자동차 브랜드인 포르쉐(Porsche)와 공동으로 자사 스카이패스(SKYPASS) 여성 회원 60여명을 초청해 포르쉐 시승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행사 참가자가 포르쉐 측의 전문 드라이버와 함께 시승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온라인몰, 제조자·원산지 표시 의무화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팔 때는 제조자, 원산지, 유통기한 등 상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품정보 제공 고시'를 18일부

터 시행한다.

통신판매업자가 의류, 영화관련권, 화장품,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을 팔 때는 반드시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제공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에는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카탈로그 판매 등이 포함된다.

의류는 소재·제조국·제조자, 식품은 제조연월일·유통기한·원산지·영양성분,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형사고발 조치도 당할 수 있다. /연합뉴스

탈북미녀와 감동베라이어티쇼!

함께하는

이것이 만나리 갑니다

CHANNEL A 매주 일요일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아트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